

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유니테스트 (086390)

HBM Burn-in 테스터가 여는 실적 턴어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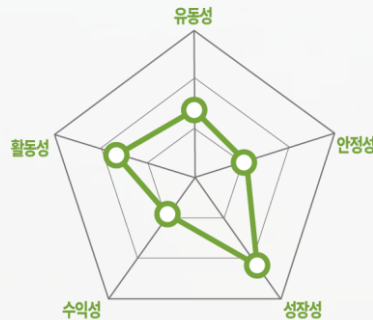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HBM4 Burn-in 테스터가 신규 성장 모멘텀. 2025년 초 개발하여 2026년 1분기 양산 될 완료. 5월 SK하이닉스향 수주(291.6억 원) 공시했으며 하반기 본격 공급 예상
- 중국 DRAM 업체 IPO에 따른 Fab 투자 확대로 중국향 DRAM Burn-in 장비도 견조. SSD 테스터는 교체 수요 중심, 태양광은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지연으로 매출 500억원 소폭 하회 전망
- 2026F 매출액 2,051억 원(+86.1% YoY), 영업이익 199억 원(흑자전환 YoY)을 전망. HBM Burn-in 테스터가 실적을 견인하는 가운데 매출액 확대와 수익성이 높은 신규 장비 매출 발생으로 흑자전환한 OPM 9.7%를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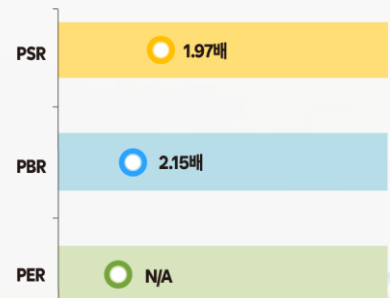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B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유니테스트는 2000년에 설립된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주요 반도체 장비로는 고속 Burn-in 테스터, SSD 테스터,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메모리 모듈 테스터, 웨이퍼 테스터 등이 있음. 태양광 사업은 발전설비 시공 사업을 EPC 방식의 턴키 형태로 영위. 2025년 기준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장비/고속 번인 테스트 장비 74.3%, 메모리 모듈 테스트 장비 0.3%, 태양광 22.4%를 기록

HBM Burn-in 테스터로 성장 기대

HBM Burn-in 테스터는 동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 동사는 2025년 초 HBM4 Burn-in 테스터 개발을 완료하여 고객사 쉘을 진행해 왔으며, 2026년 1분기 양산 쉘을 완료. 5월 SK하이닉스향 HBM4 Burn-in 테스터 수주 공시를 하였고 공급 규모는 291.6억 원 수준.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HBM 투자에 따라 하반기 추가적인 HBM Burn-in 테스터 공급이 예상. 또한 중국 DRAM 업체의 IPO로 Fab 투자 확대에 따른 중국 반도체향 DRAM Burn-in 장비의 견조한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흑자전환 예상되는 2026년

2026F 매출액 2,051억 원(+86.1% YoY), 영업이익 199억 원(흑자전환 YoY)을 전망. 실적은 HBM Burn-in 테스터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 중국 고객사향 DRAM Burn-in 장비 역시 고객사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할 것. SSD 테스터는 아직은 세대 전환이 활발하지 않은 만큼 교체 수요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태양광은 연초 기준 수주잔고는 약 500억 원으로 대부분 연내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급공사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선행공정 지연으로 연간으로도 매출액은 500억 원을 소폭 하회할 것.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액 확대와 수익성이 높은 신규 장비의 매출 발생으로 인해 흑자전환한 OPM 9.7%를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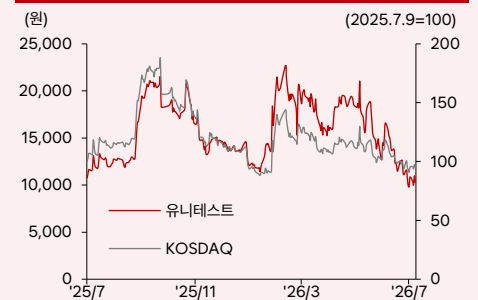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238	1,678	924	1,102	2,051
YoY(%)	8.0	35.5	-44.9	19.2	86.1
영업이익(억원)	-60	71	-234	-211	199
OP 마진(%)	-4.8	4.3	-25.4	-19.1	9.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53	68	-265	-208	136
EPS(원)	-252	319	-1,252	-984	641
YoY(%)	적지	흑전	적전	적지	흑전
PER(배)	N/A	41.9	N/A	N/A	14.4
PSR(배)	1.8	1.7	2.0	2.6	1.0
EV/EBITDA(배)	N/A	21.7	N/A	N/A	7.9
PBR(배)	1.6	1.9	1.6	3.0	1.8
ROE(%)	-3.6	4.7	-19.9	-19.3	13.1
배당수익률(%)	0.0	1.1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7/22)	9,230원
52주 최고가	22,700원
52주 최저가	9,230원
KOSDAQ(07/22)	751.09p
자본금	106억원
시가총액	1,951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1백만주
평균거래량(60일)	30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49억원
외국인지분율	8.09%
주요주주	김종현 외 7인 20.6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3.1	-22.4	-25.6
상대주가	-13.7	0.2	-19.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생산 전문 기업

2000년 설립되어

2006년 코스닥 상장한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기업

유니테스트는 2000년 3월 반도체 검사장비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아이에스오에이테크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기업이다. 2002년 9월 현재의 사명인 (주)유니테스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같은 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했다. 2004년 3월에는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컴포넌트 및 모듈 테스터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2005년 12월 대만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 영업 기반을 확보했으며 200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동사는 설립 초기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과 동작 속도를 검사하는 테스터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졌다. 2004년 DDR·DDR2 메모리 모듈 테스터 UNI460과 2005년 컴포넌트 테스터 UNI560을 개발하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메모리 검사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2008년 DDR3 양산용 컴포넌트 테스터, 2009년 번인 테스터를 선보이며 검사 범위를 성능 측정에서 초기 불량과 신뢰성 검증까지 넓혔다. 2013년에는 비메모리 검사장비 업체 테스트안을 인수해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2014년 SSD 테스터와 융복합 검사장비를 개발해 NAND 및 스토리지 검사장비 라인업을 보강했다. 이어 2017년 NAND 플래시 하이브리드 번인 테스터, 2019년 SSD용 PCIe Gen4 테스터와 DDR5 하이스피드 테스터를 개발하며 고집적 메모리와 고속 인터페이스 검사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제품 다각화를 바탕으로 2008년 300만불, 2011년 3,000만불, 2018년 7,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2019년 5월 반도체 검사장비 누적 1,000호기 납품을 달성했다.

한편 동사는 신규 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2009년 12월 태양광발전 사업에 진출해 태양광발전시스템 EPC 사업을 병행해 왔으며, 이후 3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 10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로부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인증을 획득했고, 2021년 10월에는 군산시·새만금개발청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시설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4분기부터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양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생산 기반 측면에서는 반도체 검사장비의 수요 대응과 제품 다각화에 따른 생산라인 확충을 위해 2020년 7월 평택 신공장 증설을 결정하고 2021년 12월 이를 완공했다. 이후 2024년 3분기에는 동 평택사업장에 레이저·증착·코팅 장비 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 설비를 추가로 반입해 셋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현재 동사는 용인 기흥 본사와 평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검사장비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니테스트 연혁

2000~2005	2006~2009	2010~2014	2015~
2000.03 (주)아이에스에이테크 법인설립 2002.09 (주)유니테스트로 상호 변경 2002.09 벤처기업인증 (신기술기업) 2002.09 DDR Memory 실장 Tester (A4000) 개발 2002.10 부설연구소 설립 2004.03 하이닉스와 Memory Component 및 Module Tester 공동개발계약체결 2004.12 DDR & DDR2 Memory Module Tester (UNI460) 개발 2005.02 ISO 9001/14001 획득 (UKAS) 2005.04 경기도 산업패밀리 기업 선정(3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2005.04 DDR & DDR2 Memory Component Tester(UNI560) 개발 2005.06 KTMARK(excellent Korean Technology) 획득 - UN460 (과학기술부) 2005.07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경기도) 2005.10 벤처기업 대상(산업포장: 행정자치부) 2005.12 대만법인 설립	2006.02 DDR, DDR2 & FB-DIMM Memory Module Tester(UNI480) 개발 2006.05 CE마크 획득 - UNI480(TUV) 2006.06 이노비즈인증(중소기업청) 2006.06 성실납세자 지정 (용인세무서) 2006.08 광대역폭 그래픽 메모리 자동 실장 테스터 (UN840) 개발 2006.10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대상 (산자부장관상) 2006.12 벤처기업 대상 (과학기술부총리상) 2006.12 경기중소기업 대상 (경기도) 2006.12 코스닥시장 상장 2007.01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산업자원부) 2007.04 CE인증 (UNI580) 2007.05 20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한국발명진흥회) 2007.06 기가스피드 하이엔드급 Memory Component Tester(UNI5100)개발 2007.07 대량생산용 고성능 Memory Component Tester(UNI580)개발 2007.12 나노반도체장비 완전기술상용화 사업자로 선정 (산업자원부) 2008.02 본사 이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55-1) 2008.06 DDR3 양산용 Memory Component Tester(UNI5200) 개발 2008.11 300만불 수출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2009.04 DDR3 양산용 Module Tester(UNI4200)개발 2009.09 고속의 번인장비(UNI930) 개발 2009.12 태양광발전 및 LED조명사업 신규진출	2010.02 나노반도체장비 완전기술상용화 사업성공 (산업자원부) 2010.11 500만불 수출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2010.12 현재세계일류상품(지식경제부) 2011.0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선정 2011.11 2011년 한국경영혁신 우수기업(한국경제) 2011.12 IBK 수출탑(석탑), 수출강소기업500 선정 2011.12 3,000만불 수출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2012.01 태양광 일반보급사업 참여업체 지정 2012.05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 2012.06 경영실상 수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07 글로벌 IT CEO상(KOTRA) 2012.10 미국법인 설립 2012.10 태양광 발전 장치 우수조달 물품지정 2013.01 최우수 경영실상 수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3.04 테스티안 인수(비메모리 시장 진입) 2013.06 2013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총무공상' 수상 2013.07 KB 히든스타 500기업 선정 2014.02 SSD Tester(UNI91K) 개발 2014.07 차세대 메모리 스피드 테스터(UNI5400) 개발 2014.12 융복합 검사장비(UNI51K) 개발	2015.06 DDR4 High Speed 양산용 테스터 개발 2015.06 대한민국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 2015.12 대한민국기술대상 장관상(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상 2015.12 금탑산업훈장 (한국무역협회) 2015.12 5,000만불 수출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2016.03 중국 사무소 개소 2016.05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2016.05 2016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2017.11 NAND FLASH 하이브리드 번인테스터 개발 2018.04 코스닥 '공시우수법인' 선정 2018.05 월드클래스 300 선정 2018.12 7,000만불 수출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19.05 반도체검사장비 1000호기 납품 달성 2019.06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수상(코스닥협회) 2019.09 PCIe Gen4 Tester (UNI92K) 개발 2019.10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세계 최고효율 인증(미국 메나지성 NREL) 2019.12 DDR5 high speed tester 개발 2020.03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청) 2020.08 한국전력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업화 MOU체결 2021.11 한국전력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시제품개발 협약식 체결 2021.12 평택공장 준공 2025.03 각지대표 체제 변경

자료: 유니테스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종속회사 현황

2026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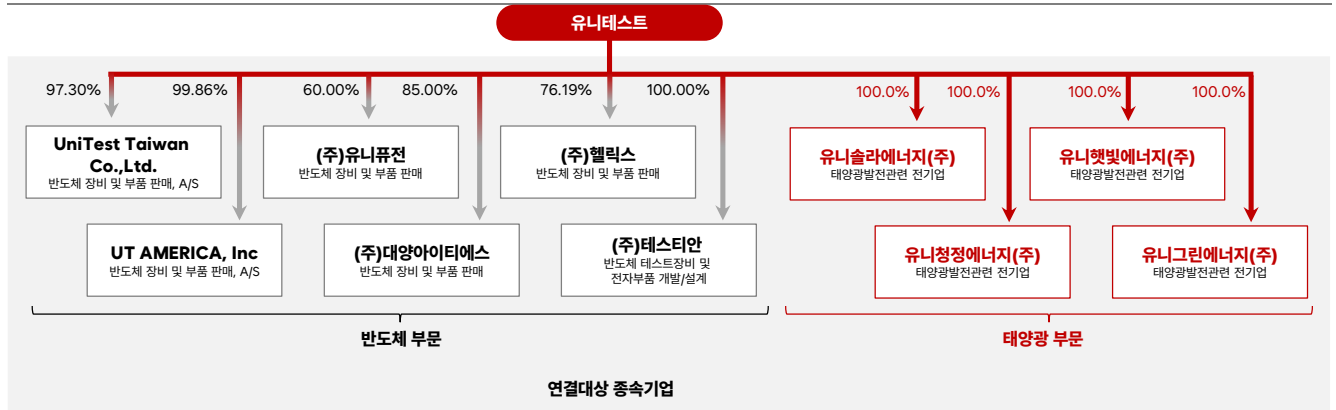
총 10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보유

2026년 1분기 기준 유니테스트는 10개의 비상장 종속회사를 통해 반도체 검사장비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판매·유지보수와 개발을 담당하는 종속회사가 대만·미국·한국 6개사, 태양광발전 관련 전기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가 한국 4개사이다.

종속회사별로 보면, 1)UniTest Taiwan Co., Ltd.는 2005년 12월 설립된 대만 법인으로 지분율 97.30%, 1Q26 기준 자산총액은 223억 원이다. 동 법인은 반도체 장비 및 부품 판매와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며, 대만 지역 고객 대응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UT America, Inc.는 2012년 10월 설립된 미국 법인으로 지분율 99.86%, 1Q26 기준 자산총액은 36억 원이며, 미국 지역에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판매와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한다. 3)㈜유니퓨전은 2018년 6월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지분율 60.00%, 1Q26 기준 자산총액은 57억 원이며,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판매와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한다. 이 외 국내 반도체 부문 종속회사로는 4)2012년 설립돼 지분율 85.00%를 보유한 (주)대양이테스, 5)2015년 설립돼 지분율 76.19%를 보유한 (주)헬릭스, 6)2013년 인수해 지분율 100%를 보유한 비메모리 검사장비 업체 (주)테스티안이 있으며, 1Q26 기준 자산총액은 각 19억 원, 8억 원, 0.1억 원이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7)유니솔라에너지(주), 8)유니청정에너지(주), 9)유니햇빛에너지(주), 10)유니그린에너지(주) 4개사를 지분율 100%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모두 태양광발전 관련 전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Q26 기준 자산총액은 각각 16억 원, 28억 원, 32억 원, 0.05억 원이다.

유니테스트 지분도



주: 2026년 3월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및 매출 구성

2025년 매출 비중은

메모리 컴포넌트·고속 번인 테스터

74.3%, 태양광 22.4%

동사의 주요 사업은 반도체 검사장비와 태양광사업으로 구분된다. 주요 반도체 장비로는 고속 Burn-in 테스터, SSD 테스터,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메모리 모듈 테스터, 웨이퍼 테스터 등이 있다. 태양광사업으로는 기존 Si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한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 중이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 장비/고속 번인 테스트 장비 74.3%, 메모리 모듈 테스트 장비 0.3%, 태양광 22.4%를 기록하였다.

고속 Burn-in 테스터

메모리 반도체의 모든 공정이 완료된 후 Chip 상태에서 고온, 저온 상태에서 메모리를 구동하여 초기 불량률을 걸러내는 Burn-in 장비이다.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개별 Chip 상태에서 Device의 전기적인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이며, Device의 Speed, Data Read/Write, Refresh 등의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이다.

메모리 모듈 테스터

여러 개의 Chip으로 구성된 메모리 Module의 전기적인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이며, 메모리 Module의 Speed, Data Read/Write, Refresh 등의 성능을 다수의 테스트 슬롯에서 동시에 검사하는 장비이다.

SSD 테스터

Storage Device인 SSD의 성능을 검사하여 제품의 초기불량률을 검출하는 장비이다. 읽기/쓰기 속도, 데이터 무결성, 수명 테스트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Form factor 및 Interface Protocol에 대응이 가능하다.

웨이퍼 테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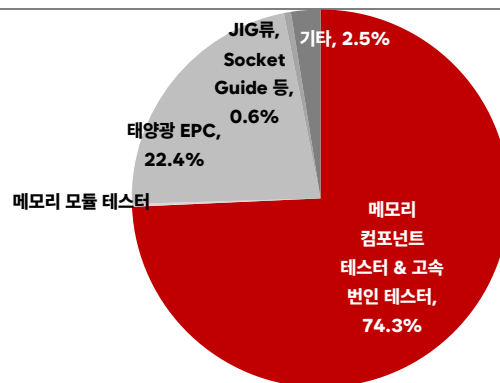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의 후공정을 진행하기 전 Wafer 상태에서의 전기적인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이며, Wafer의 Speed,

Data read/Write/Erase, Repair 등의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이다. 프로버(Probe)를 통해 웨이퍼에 신호를 공급하고, 고/저온 환경에서 불량을 선별(Screening)한다.

태양광사업

현재 태양광발전시스템 건설공사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 중이다. 정부와 민자사업의 EPC(설계, 조달, 시공 일괄 수주)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허가 및 시공,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유니테스트 매출 비중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스트 주요 제품

Semiconductor Tester			Green Energy
Memory Tester	Non-Memory Tester		Solar
DRAM 검사장비 - DDR4 High Speed Burn-In Tester - DDR4 Speed Tester - Wafer Tester - HBM Burn-in Tester 	NAND 검사장비 - NAND High Speed Burn-in Tester - Wafer Tester - Storage Tester - Gen5 and Gen6 SSD with CXL 	시스템 반도체 - System IC Burn-in Tester - PMIC Tester - DC Tester - Cmos Image Sensor Tester - Mixed Signal, AP Tester - RP Tester 	태양광 발전 - Solar Energy Inverter - Solar Energy Related Devices -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Perovskite solar c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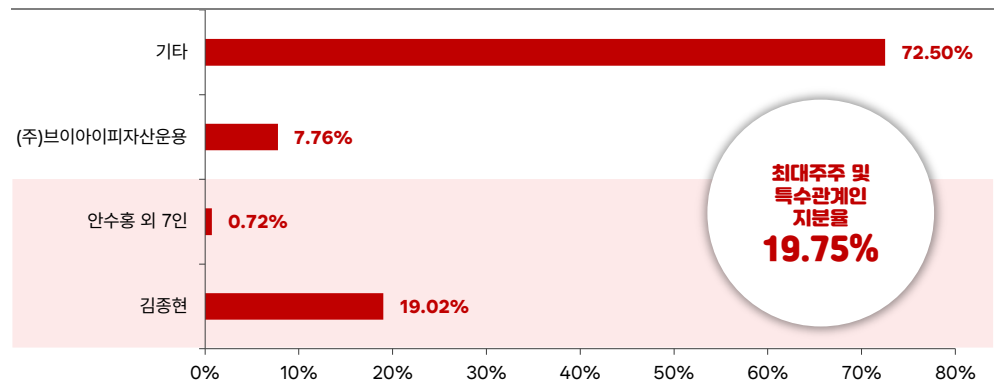
자료: 유니테스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최대주주는 김종현 대표이사로
지분 19.02% 보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는 19.75%**

유니테스트의 최대주주는 김종현 대표이사로 개인 지분 19.02%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종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는 19.75%이다. 김종현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연구원을 거쳐 2000년 유니테스트를 설립했다. 2002년 8월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왔으며, 2025년 3월 각자대표 체제 전환 이후에는 안수홍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 5% 이상 주주로는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2026년 3월말 기준 지분 7.76%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테스트 주주 현황



주: 2026년 3월말 기준, 자료: Dai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반도체 장비 개요

반도체 장비는 고객 공정 스펙에
맞춘 주문 생산과 소자업체와의
공동 개발이 경쟁력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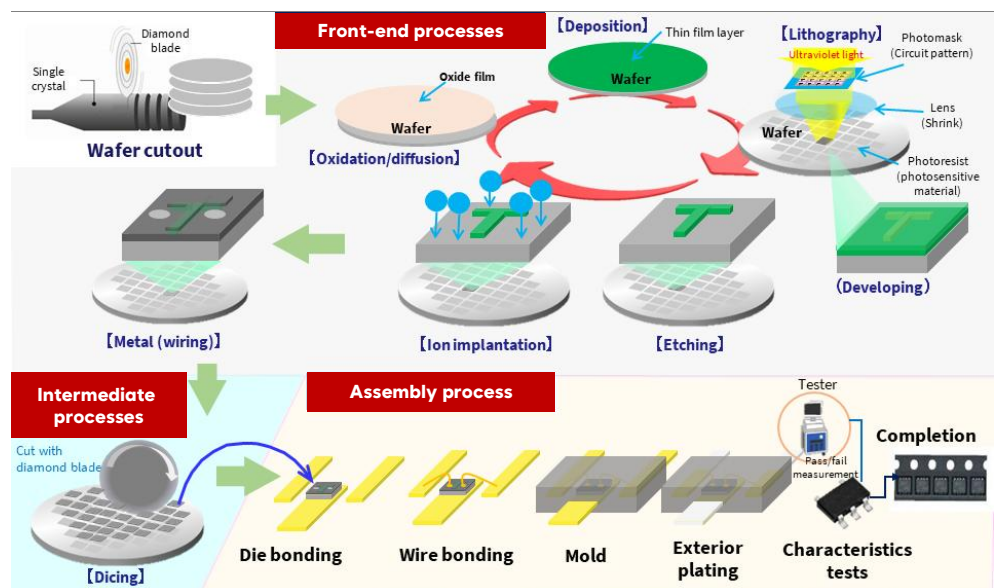
반도체 장비는 회로 설계, 실리콘 웨이퍼 제조 등 준비 단계부터 웨이퍼 가공, 칩 패브리케이션, 조립 및 테스트에 이르는 전체 제조 공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정별로 분류하면, 전공정 장비(웨이퍼 가공), 후공정 장비(조립 및 검사), 그리고 가스 공급, 웨이퍼 트랜스퍼, 건조 등 보조 역할을 하는 관련 장비로 구분된다.

전공정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를 통해 칩을 형성하는 핵심 공정에 투입되며, 국내 시장에서 전체 장비 수요의 약 70%를 차지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다. 주요 구성으로는 노광장비, Photo Resist 코터, 디벨로퍼, 산화 및 확산 처리 장비, 이온 주입(Implantation) 장비, 식각 장비, CVD, PVD 증착 시스템, CMP 평탄화 장비, 세정, 건조 장비, 그리고 Wafer-level 검사 장비가 포함된다.

후공정 장비는 전공정 완성 칩의 조립과 신뢰성 검증을 담당하며, Dicing Saw 장비(웨이퍼 절단), Die Bonding 장비(다이 부착), Packaging 장비(패키징), 그리고 Burn-in Tester, Package Tester, Prober, Test Handler 등의 검사용 장비로 구성된다. 이들 장비는 칩의 리드 프레임 연결과 단계별 불량 스크리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표준화된 제품이 아닌, 고객의 공정 스펙에 맞춘 주문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동일 고객이라도 생산 라인별 최적화 요구가 상이하므로, 소자 업체와의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적시에 공급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도체 주요 공정



자료: Toshib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2026년 글로벌 300mm 팹
장비 투자는 1,330억달러(+18%
YoY)로 확대될 전망**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AI 칩 수요 급증과 함께 지역화된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려는 의지로 인해 최근 반도체 장비 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글로벌 300mm 팹 장비 투자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330억 달러가 예상되고 2027년에는 14% 증가한 1,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8년에는 3% 증가한 1,550억 달러, 2029년에는 11% 증가한 1,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동인은 AI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로직 및 메모리 분야의 생산 능력 확대와 주요 부문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공정 기술 마이그레이션 등이다.

**로직·마이크로컴포넌트 부문은
2nm 이하 파운드리 설비 투자가
성장을 주도**

로직 및 마이크로컴포넌트 부문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2,28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장비 확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2nm 이하의 최첨단 설비 투자로 파운드리 부문이 강력한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 첨단 노드 기술은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의 까다로운 칩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칩 성능과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더욱 발전된 노드 기술은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양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성능 향상은 다양한 엣지 AI 기기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 노드 기술 외에도 모든 노드 및 다양한 전자 기기에 대한 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노드 기술에 대한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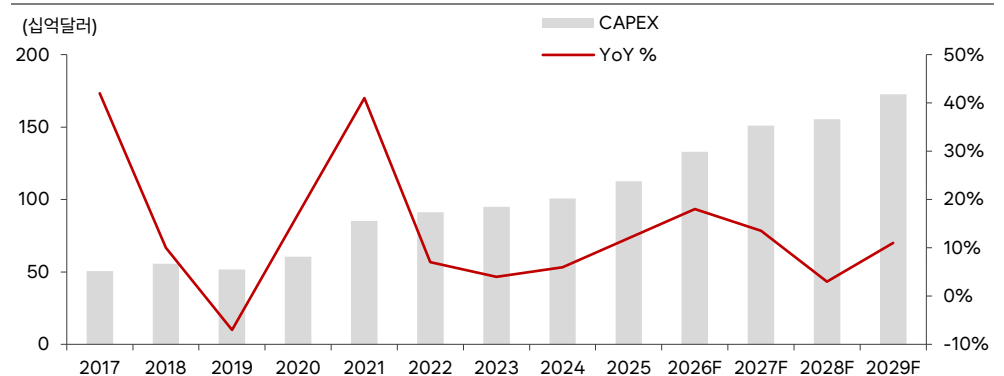
**메모리 부문은 AI-HBM 수요에
힘입어 2026년 투자액 +9%
증가한 520억달러로 확대 전망**

메모리 부문은 2026년 +9% 증가한 520억 달러에 도달한 후 2027년에는 11% 증가한 5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및 차세대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AI 기반의 첨단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기인한다. 메모리 부문의 전 세계 300mm 팹 장비 투자액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00mm 메모리 생산 능력 또한 증가하여 2026년에는 월 410만 웨이퍼, 2027년에는 월 420만 웨이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HBM 및 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자 우선순위가 재편되고 있다. AI 인프라가 확장됨에 따라 메모리 제조업체들은 차세대 데이터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이전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DRAM 장비 투자는 GPU 및 기타 AI 가속기에 사용되는 HBM 및 DDR5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6년까지 29% 증가한 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D NAND 장비 투자 또한 AI 배포와 관련된 데이터 저장 요구 사항 증가에 따라 2026년까지 28% 증가한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첨단 노드 DRAM 및 고층 3D NAN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메모리 용량 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노드 DRAM, HBM 및 고층 NAND로의 전환을 포함한 기술 마이그레이션 및 공정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용량 증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역별로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국내 생산 능력 확장과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에 힘입어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지역에서는 2nm 이하 기술을 포함한 최첨단 파운드리 설비 확충이 투자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AI 관련 수요 증가로 CAPA 확대 및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메모리 부문에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은 첨단 공정 확장과 국내 제조 생태계 강화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300mm Fab 장비 투자액 전망



자료: SEM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태양광 시장 전망

**태양광 발전은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 기술**

태양광 발전은 태양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이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 셀(Cell)의 조합인 모듈, 모듈의 조합인 어레이로부터 접속함 및 생성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해 주는 전력변환장치(인버터) 등으로 구성된다.

**2025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는 600GW를 최초로
돌파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2025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간 신규 설치량은 600GW를 최초로 상회하며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다. 누적 설치용량은 약 2,800GW에 달하였으며 태양광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용량을 보유한 발전 기술이 되었다. 연간 1GW 이상을 설치한 국가는 30개국에 달해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25년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800GW로 이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를 상회해, 풍력의 20%를 크게 상회하였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

지역별로 보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은 2025년 32.0GW에서 2030년 55.7GW, 2038년 77.2GW로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체 보급 목표 역시 2030년 78.0GW, 2038년 121.9GW로 상향되었으며, 이 가운데 태양광은 풍력과 함께 보급 확대를 주도하는 핵심 전력공급원이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수상, 주차장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 이격거리 규제 완화, ESS 확충 등을 통해 보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대에 국내 전력수요는 연평균 1.8% 증가해 2038년 129.3GW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 NDC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수요 증가분을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발전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20.8%에서 2030년 37.8%, 2038년 45.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정책 방향과 함께 국내 태양광 수요의 구조적 성장이 전망된다.

**중국 2025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주도력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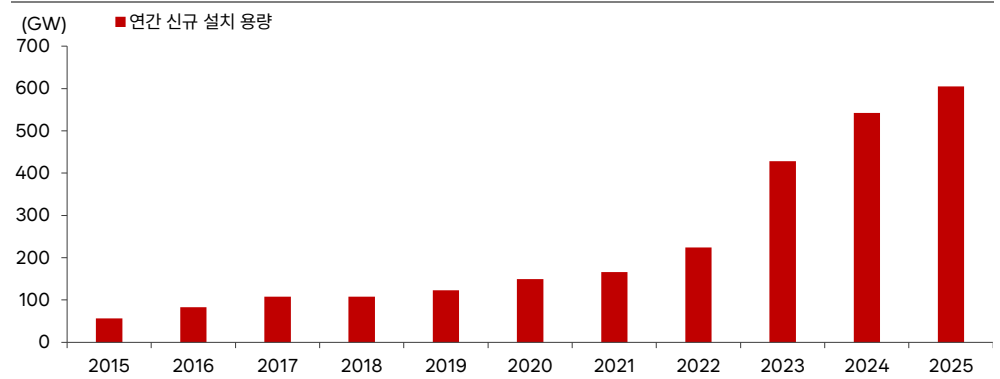
중국의 시장 주도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중국은 2025년 재생에너지 전체 신규 설치의 60% 이상인 약 500GW를 차지했으며, 이 중 태양광만 약 368GW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다만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장기 고정가격제에서 경쟁 입찰제로의 전환은 상반기 밀어내기식 설치 러시아와 하반기 둔화라는 양극화된 흐름을 만들었다. 유럽연합은 사상 최대인 85GW의 재생에너지를 신규 설치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약 69GW로 성장을 견인했다. 독일 17GW와 스페인 14GW가 EU 태양광 설치의 각각 1/4, 1/5을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인도는 태양광 48GW 설치에 힘입어 주요 시장 중 가장 빠른 56%의 재생에너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태양광 설치가 -14% YoY 감소한 43GW로 둔화되었다. 이는 세액공제 조기 종료와 연방 토지 내 인허가 제한 등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태양광 설치가 7GW로 4배 증가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처음으로 3GW 이상을 설치했다. 파키스탄도 계통 연계형 및 독립형 분산형 시스템을 중심으로 약 10GW를 추가했다. 이러한 신흥시장의 부상으로 중국, 유럽, 인도 중심의 성장축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성장 기조는
유지되나, 정책 변화로 성장
경로는 과거 전망 대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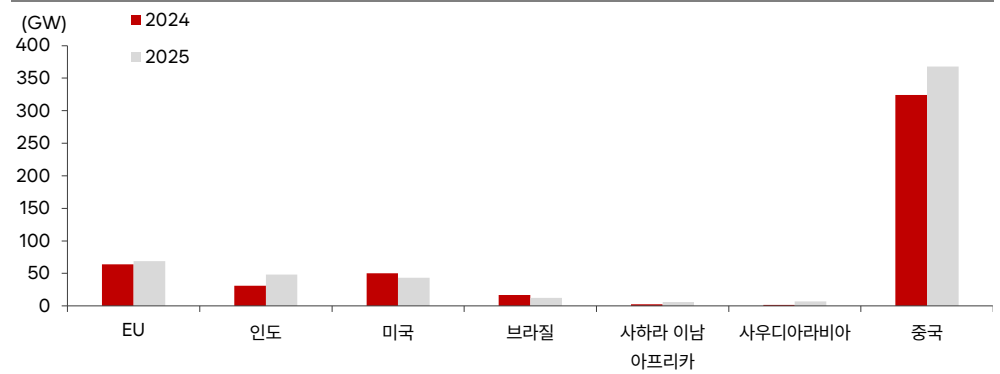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나 성장 경로는 과거 예상보다 완만해질 전망이다. IEA는 2025~203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전망을 작년 대비 5% 하향 조정했으며, 감소분의 70% 이상이 태양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세액공제 조기 종료, FEOC 규제, 연방 토지 인허가 제한, 그리고 중국의 고정가격제에서 경쟁 입찰제로의 전환이 주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연간 설치량은 2025년 약 600GW에서 2026~2028년 500GW대로 일시 둔화한 뒤, 2030년 약 700GW로 재상승하는 완만한 U자형 궤적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2025~2030년 태양광 누적 추가 설치량은 약 3.6TW로 재생에너지 전체 증설분의 80%를 차지해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유지하며, 2030년 누적 설치용량은 6TW 중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도, 유럽, 중동,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 성장축이 중국, 미국 중심에서 다변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태양광 확대의 성패는 그리드 인프라 확충,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출력제한 관리 능력에 좌우될 전망이다.

태양광 PV 신규 설치 용량



자료: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태양광 PV 신규 설치 용량



자료: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 HBM4 번인 테스트는 신규 성장 동력

고난도·고수익 장비인 HBM4
번인 테스트를 신성장 모멘텀으로
2027년 공급 확대와 이익 개선
기대

HBM Burn-in 테스트는 동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BM은 후공정에서 크게 EDS(웨이퍼 상태 전기적 선별) → 번인(고온, 고전압 스트레스로 초기 불량 스크리닝) → 파이널 테스트(출하 전 최종 성능 확인)로 세 단계 검사가 이뤄진다. 이 중 HBM 특유의 이슈는 적층 전 KGSD(Known Good Stack Die) 테스트가 필수라는 점이다. HBM은 여러 장의 DRAM 다이를 TSV로 쌓아 올리는 구조이므로 적층 이전에 개별 다이의 불량 여부를 걸러내지 못 하면 적층 후 전체 스택, 그리고 여기 들어간 GPU, HBM 패키지 전체가 불량 처리되는 리스크가 있다. 특히 로직 베이스 다이는 스택 내 모든 DRAM 다이에 대한 유일한 접근 경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 하나의 불량이 그 위에 쌓인 8~16개 DRAM 다이 전체를 폐기시키는 손실 배수(loss multiplier) 구조를 만든다. 이런 이유로 웨이퍼 단계에서의 전수검사 비중이 일반 DRAM보다 훨씬 높으며, 실제로 12단 스택 기준 조립업체의 품질 수준에 따라 웨이퍼~적층 단계에 걸친 테스트 삽입(insertion) 횟수가 3회에서 많게는 12회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HBM이 AI 칩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기준으로 HBM 불량이 데이터센터 내 GPU 장애의 1순위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적층 이전 단계에서 결함을 걸러내는 shift-left 검사 전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DRAM 테스트 흐름에도 웨이퍼 레벨 번인 공정이 포함되는데 이는 잠재 결함을 조기에 가속, 발현시켜 이후 표준 테스트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번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게이트 산화막 결함 등 초기 불량을 스크리닝하고, 둘째는 비트셀이 커패시터 구조인 만큼 셀 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과거에는 번인을 웨이퍼, 개별 다이, 패키지 중 어느 단계에서 수행할지를 놓고 업계 내 이견이 있었으나 HBM의 적층 구조가 본격화되면서 공정 초기 단계에서 결함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웨이퍼 레벨 번인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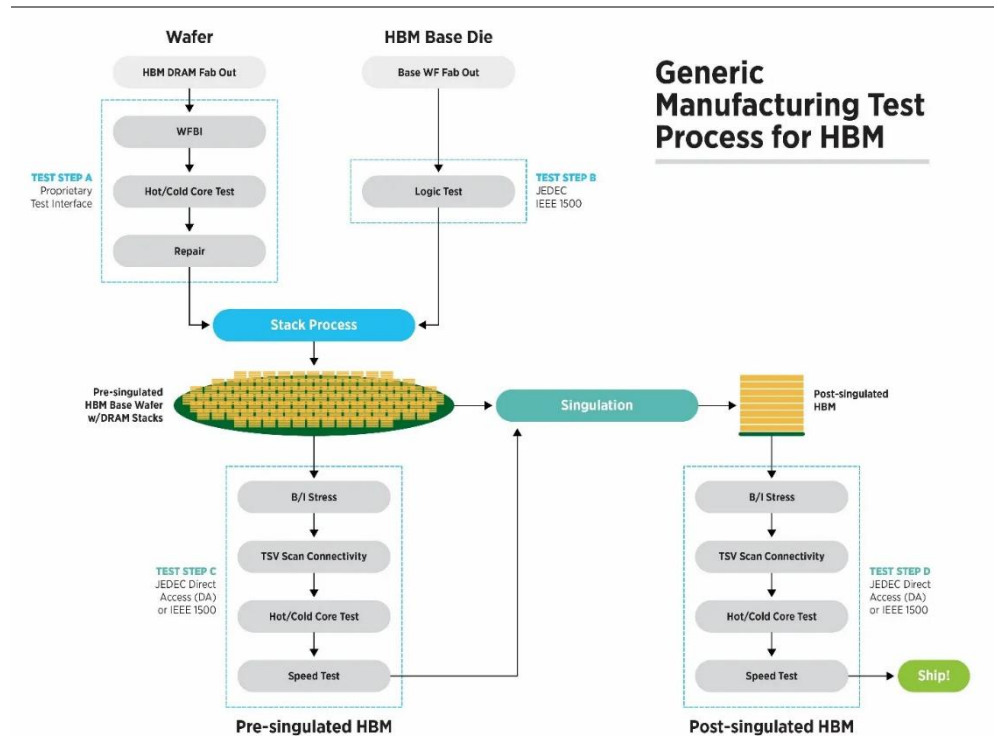
HBM은 GDDR과 달리 열원이 여러 칩에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스택에 집중되는 구조라 방열이 특히 불리하다. 적층 다이는 반대로 외곽은 냉각이 용이한 반면 중심부의 열을 밖으로 빼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Burn-in 과정에서 고온, 고전압 스트레스 인가 자체가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장비 쪽에서도 스택 상태에서의 열, 전기 특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설계가 요구된다. 이런 장비의 높은 기술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HBM Burn-in 테스트의 단가도 기존 DRAM Burn-in 테스트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HBM3e 대비 동일 CAPA에서 더 많은 장비가 요구된다.

HBM4는 기존 HBM3e 대비 인터페이스를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채널 수를 16개에서 32개로 두 배 확장한 구조로, 스택을 관통하는 TSV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범프 피치를 축소해야 하는 등 물리적 난이도도 함께 높아진다. 다이당 필요한 테스트 채널 자원이 늘어 Para(동시 처리 수)가 줄고, 핀 속도가 9.2Gbps에서 12.4Gbps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른 신호 무결성 문제로 번인 사이클타임이 길어진다. 여기에 세대 전환에 따라 스택당 소비 전력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열 관리 부담을 가중시켜 사이클타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적층 단수가 12단에서 16단으로 증가해 스택 원가 부담이 커진 만큼 KGD, KGS 검사 단계 자체도 늘어난다. 파라 감소, 사이클타임 증가,

검사 스텝 증가로 인해 동일 CAPA 기준 필요 장비 대수가 HBM3e 대비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는 웨이퍼 상태에서 적층한 뒤 후면을 프로빙하는 방식이 표준이지만, 개별화(singulation)된 스택을 직접 테스트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테스트 삽입 지점 자체가 더 앞당겨지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

SK하이닉스향 HBM Burn-in 테스터는 HBM3e까지 일본의 Advantest가 주력으로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Advantest가 HBM4 테스터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며 동사와 국내 경쟁사만이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초 HBM4 Burn-in 테스터 개발을 완료하여 고객사 킷을 진행해 왔으며, 2026년 1분기 양산 킷을 완료하였다. 동사는 SK하이닉스향 HBM4 Burn-in 테스터 주주 2건 공시를 하였고 공급 규모는 각각 291.6억 원과 226.8억 원으로 총 518.4억 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HBM 투자에 따라 추가적인 HBM Burn-in 테스터 공급이 예상된다. 동사는 현재 경쟁사 대비 늦게 장비 공급을 시작하여 고객사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27년에는 고객사의 HBM4 생산 확대에 따른 HBM Burn-in 테스터 수요 증가와 동사의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를 통한 장비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HBM Burn-in 테스터는 기존 장비들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 이익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HBM 테스트 공정



자료: Teradyn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견조한 중국 DRAM 번인 테스터 수요 전망

중국 DRAM 업체의 Fab 증설로
동사 중국향 매출은 2026년
+37% 확대 전망

중국 반도체향 DRAM Burn-in 장비의 견조한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중국 DRAM 업체향으로 Burn-in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 DRAM 업체는 2025년 허페이와 베이징 Fab에 70K/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 중국향 매출도 약 4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DRAM 업체는 2026년 허페이 Fab 증설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하이 Fab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DRAM 업체는 7월 27일 중국 상하이 커창반(STAR Market) 상장을 통해 약 579.2억위안(약 12.7조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공정 연구개발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약 172.3억 위안은 장비 투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SMIC의 장비투자 비중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중국 DRAM 업체는 상하이 공장을 증설 중이다. 현재 허페이 200K/월, 베이징 100K/월에서 상하이 Fab 50K/월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8년까지 총 550K/월 규모의 CAPA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하이 Fab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하반기~2027년이 상하이 신규 Fab 장비 반입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예상되어 동사 장비 발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일본 Advantest와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던 구조에서 Advantest가 이탈하며 중국 로컬 업체와의 경쟁 구조로 재편되었다. 국내 고객사향 장비 대비 낮았던 수익성도 장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어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6년은 허페이 Fab 증설과 상하이 Fab 초도 물량으로 전년 대비 약 37% 중국향 매출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은 상하이 Fab의 본격 증설로 매출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DRAM 업체 2030E DRAM CAPA 전망

(단위: K/월)	Hefei Fab1	Hefei Fab2	Hefei Fab3	Beijing Fab1	Beijing Fab2	Shanghai Fab
2025	100	100	-	30	50	-
2030E	100	100	100	100	1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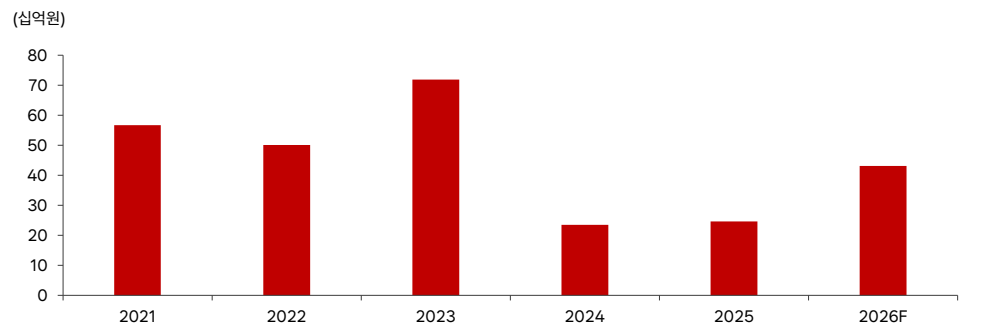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태양광 수주 확대

태양광은 EPC 턴키 방식으로
영위하며, 연초 수주잔고 약
500억 원에 더해 괄 600억 원
규모 해외 수주 최초 확보

동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사업을 EPC(설계, 조달, 시공) 방식의 턴키 형태로 영위하고 있으며, 인버터, 기상관측반, 모니터링시스템 등 자체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지자체 및 민간 발주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연초 기준 수주잔고는 약 500억 원으로 파악되며, 최근에는 괄 지역에서 6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를 최초로 확보하며 수주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계약은 공사기간이 2028년 12월까지 2년 반에 달해 올해 매출 반영 여부는 불확실하며, 기존 확보한 수주 물량이 올해 및 내년 매출로 순차 인식될 전망이다. 다만 매출의 분기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관급공사 안전규정 강화로 착공 전 선행공정(인허가 등)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공사 진행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반기 태양광 매출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여 당사는 2026년 태양광 부문 매출은 431억 원으로 추정한다.

유니테스트 태양광사업부 매출액 추이



자료: 유니테스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태양광 부진으로 성장 제약된 2025년

2025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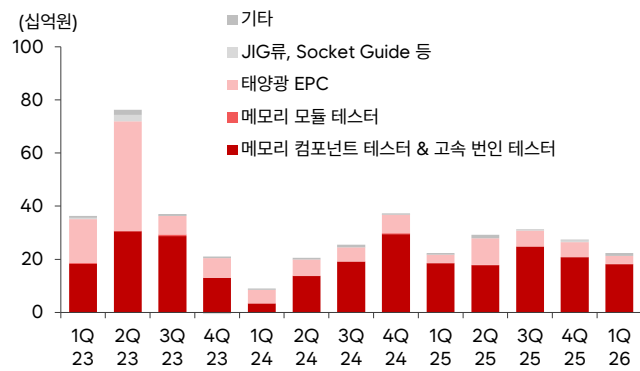
1,102억 원(+19.2% YoY),

영업손실 211억 원(적자지속

YoY)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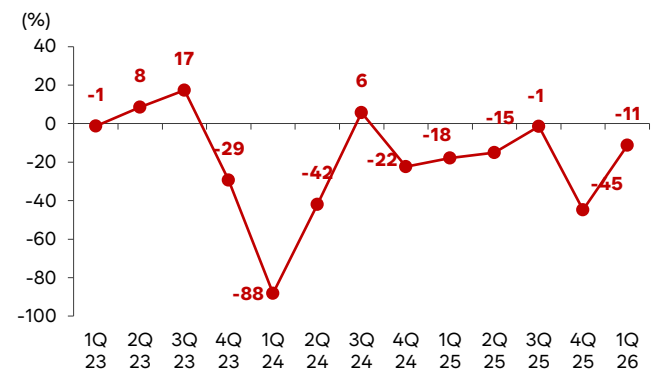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매출액 1,102억 원(+19.2% YoY), 영업손실 211억 원(적자지속 YoY)을 기록하였다. 부문별 매출은 메모리 컴포넌트 및 고속 번인테스트 819억 원(+24.9% YoY), 태양광 246억 원(+4.8% YoY)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장비는 대부분 DRAM Burn-in 테스터와 SSD 테스터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DRAM Burn-in 테스터는 중화권 고객사로 DDR4, DDR5 Burn-in 테스터 공급을 확대하며 약 4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SSD 테스터는 SK하이닉스 및 Micron향으로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태양광은 2024년에 이어 주요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이 지연된 영향에 따라 부진한 수주로 평년 대비 저조한 매출액을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액 증가에도 적자폭 축소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여전히 전사 매출 규모가 연간 BEP를 상회하지 못한 점과 4분기 중 반영된 태양광 부문의 일회성 손실 요인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OPM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에 그친 -19.1%를 기록하였다.

유니테스트 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스트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HBM Burn-in 테스터가 견인할 2026년

2026F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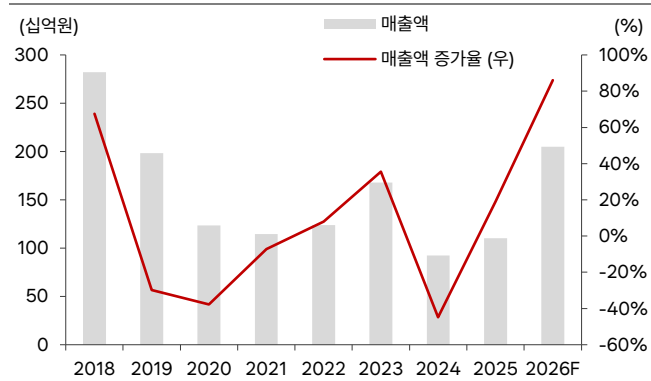
2,051억 원(+86.1% YoY),

영업이익

199억 원(흑자전환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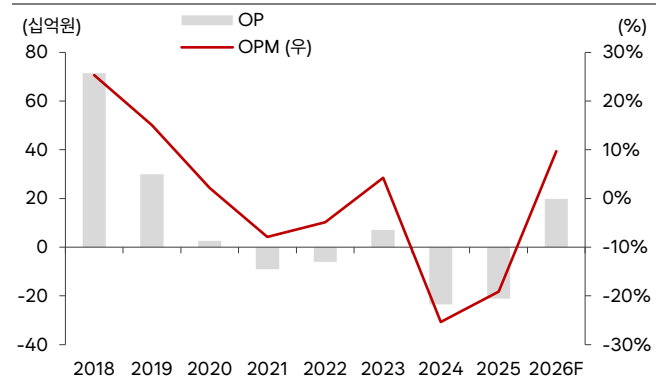
2026F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2,051억 원(+86.1% YoY), 영업이익 199억 원(흑자전환 YoY)을 전망한다. 2026년 동사 실적은 HBM Burn-in 테스터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1분기 양산 쿨을 완료하였고 5월과 7월 SK하이닉스향 518.4억 원 규모의 HBM4 Burn-in 테스터 수주 공시를 하였다.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HBM 투자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HBM Burn-in 테스터 공급이 예상된다. 중국 고객사향 DRAM Burn-in 장비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객사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은 허페이 Fab 증설과 상하이 Fab 초도 물량으로 전년 대비 약 37% 중국향 매출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SD 테스터는 아직은 세대 전환이 활발하지 않은 만큼 교체 수요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태양광은 연초 기준 수주잔고는 약 500억 원으로 대부분 연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급공사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 대비 상반기 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도 매출액은 500억 원을 소폭 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액 확대와 수익성이 높은 신규 장비의 매출 발생으로 인해 흑자전환한 OPM 9.7%를 전망한다.

유니테스트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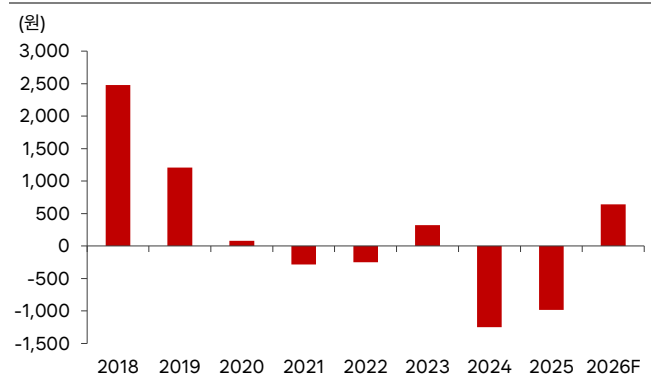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스트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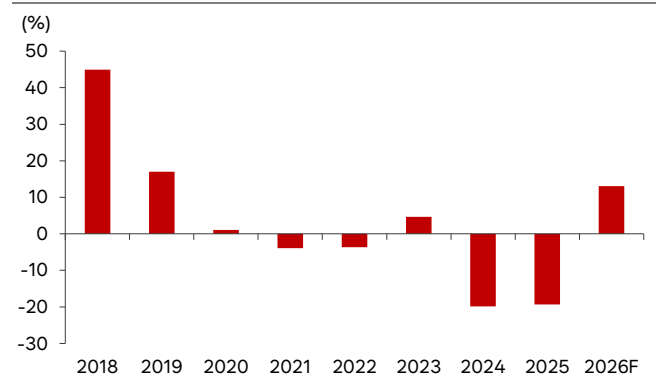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스트 EPS 추이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스트 ROE 추이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스트 부문별 실적

(단위: 십억원)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6.3	76.3	37.1	18.1	9.0	20.6	25.5	37.3	22.4	29.2	31.3	27.3	22.4	167.8	92.4	110.2	205.1
메모리 컴포넌트/고속 번인 테스터	18.3	30.5	28.7	13.0	3.3	13.7	19.1	29.4	18.5	17.7	24.8	20.8	18.2	90.5	65.5	81.9	157.5
메모리 모듈 테스터	0.5	0.2	0.6	0.1	0.2	0.0	0.1	0.3	0.1	0.2	0.0	-0.0	0.0	1.4	0.6	0.3	0.5
태양광 EPC	16.3	41.2	7.0	7.4	5.0	6.2	5.3	7.0	3.2	9.9	5.9	5.7	3.1	71.9	23.5	24.6	43.1
JIG류, Socket Guide 등	0.5	2.4	0.0	-2.9	0.0	0.1	0.0	0.0	0.0	-	0.1	0.5	-	-	0.2	0.7	0.8
기타	0.8	1.9	0.7	0.6	0.4	0.6	1.0	0.5	0.6	1.4	0.4	0.4	1.1	4.0	2.6	2.8	3.1
영업이익	-0.4	6.5	6.4	-5.3	-7.9	-8.6	1.5	-8.3	-4.0	-4.4	-0.4	-12.3	-2.5	7.1	-23.4	-21.1	19.9
지배주주순이익	-0.2	7.1	6.5	-6.6	-7.0	-7.4	0.6	-12.7	-4.3	-5.8	0.5	-11.1	-0.6	6.8	-26.5	-20.8	13.6
Margin(%)																	
영업이익률	-1.2	8.5	17.4	-29.4	-88.1	-42.0	5.8	-22.3	-17.8	-15.0	-1.4	-44.9	-11.3	4.3	-25.4	-19.1	9.7
지배주주순이익률	-0.5	9.2	17.5	-36.4	-78.0	-35.7	2.3	-33.9	-19.4	-20.0	1.7	-40.7	-2.5	4.0	-28.6	-18.9	6.6
YoYGrowth(%)																	
매출액	102.5	305.1	17.7	-67.4	-75.2	-73.0	-31.2	106.1	148.6	41.7	22.6	-26.7	0.0	35.5	-44.9	19.2	86.1
메모리 컴포넌트/고속 번인 테스터	82.0	169.0	41.7	-41.5	-81.9	-55.2	-33.5	126.8	459.5	29.9	29.8	-29.4	-1.9	41.8	-27.6	24.9	92.4
메모리 모듈 테스터	34.7	-55.9	16.0	-76.9	-61.2	-81.8	-84.9	522.0	-60.6	355.2	-52.3	적전	-62.1	-16.3	-52.8	-57.1	84.1
태양광 EPC	147.9	709.6	-18.0	-75.4	-69.2	-85.0	-24.5	-5.2	-37.2	59.8	11.4	-19.0	-1.4	43.5	-67.3	4.8	75.0
JIG류, Socket Guide 등	28.9	399.4	-99.7	적전	-90.5	-97.7	756.9	흑전	-32.4	-100.0	142.3	2,175.0	-100.0	-100.0	-	311.9	23.6
기타	32.5	36.2	-12.6	-75.6	-41.3	-66.6	34.2	-9.0	37.9	111.2	-55.9	-30.0	76.6	-23.9	-35.0	6.8	13.1
영업이익	적지	흑전	흑전	적전	적지	적전	-77.1	적지	적지	적지	적전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적지	흑전
지배주주순이익	적지	흑전	흑전	적전	적지	적전	-90.9	적지	적지	적지	-11.2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적지	흑전
QoQGrowth(%)																	
매출액	-34.6	110.2	-51.4	-51.2	-50.2	128.6	23.8	46.3	-40.0	30.4	7.1	-12.6	-18.1				
메모리 컴포넌트/고속 번인 테스터	-17.6	67.1	-5.9	-54.8	-74.5	312.6	40.0	54.0	-37.1	-4.2	39.9	-16.2	-12.6				
메모리 모듈 테스터	109.7	-51.0	158.5	-91.3	252.7	-77.0	114.1	258.9	-77.6	164.9	-77.6	적전	흑전				
태양광 EPC	-45.4	152.7	-83.0	5.0	-31.8	23.5	-14.6	31.8	-54.8	214.0	-40.4	-4.2	-45.0				
JIG류, Socket Guide 등	-39.3	389	-99.8	적전	흑전	21.0	-41.7	-26.8	30.8	-100.0	-	587.2	-100.0				
기타	-68.9	152.7	-62.4	-17.4	-25.2	43.6	51.1	-44.0	13.4	120.0	-68.4	-11.0	186.0				
영업이익	적전	흑전	-0.4	적전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순이익	적전	흑전	-8.0	적전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자료: Quantil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6F PER 14.4x, PBR 1.8x

2026F PER 14.4배, PBR

1.8배로 Peer 대비 저평가.

HBM 비중 확대 및 일회성 손실

요인 해소로 리레이팅 가능

동사의 현재주는 2026F PER 14.4x, PBR 1.8x로 Historical PBR Band(1.4x~4.6x) 중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다. 동사의 Peer 업체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를 선정하였다. 2026F Peer 평균 PER은 26.9x 수준이다. 국내 Peer 평균 PER은 12.2x, 해외 Peer 평균 PER은 49.0x 수준이다. Advantest(일본)와 Teradyne(미국)의 높은 프리미엄은 SoC, 아날로그, 메모리 등 다변화된 고객 및 최종 시장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이익 및 AI 반도체 밸류체인 내 구조적 지배력에 기인하며 이는 국내 소형주 대비 구조적으로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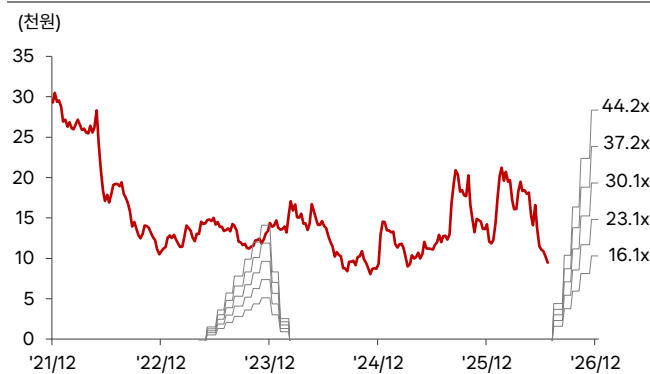
동사는 국내 Peer 대비로 가장 높은 14.4x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 EPC 사업 등 비핵심 사업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BM 매출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 다만 디아이가 2024년 4분기부터 SK하이닉스형 HBM 번인테스터를 이미 실제로 증명하고 있는 반면 동사는 2026년 5월에야 첫 양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발주자 포지션에 있다. 다만 후발주자인 만큼 향후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 여지가 크며, HBM 매출 비중이 본격 확대되고 태양광 부문의 일회성 손실 요인이 해소된 상황에서 2027년 HBM Burn-in 테스터 물량 확대 여부가 동사 주가 Valuation 리레이팅 요소라 판단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총액 (십억원, 백만달러)	매출액(십억원, 백만달러)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6,798	5,391,958	3,712,325	3,917,205	4,045,906	11.3	15.4	7.0	0.8	1.3	1.7
코스닥	751	418,703	332,644	361,445	129,236	211.4	112.4	21.9	1.5	2.1	2.5
유니테스트	9,230	195	92	110	205	N/A	N/A	14.4	1.6	3.0	1.8
디아이	19,330	547	214	432	589	374.1	118.6	13.6	2.5	3.4	2.7
엑시콘	15,030	196	32	66	129	-94.25	22.0	10.9	0.8	1.0	1.0
네오셈	9,170	402	105	64	143	19.9	90.0	12.1	3.2	3.9	2.7
Advantest(일본)	181	132,730	4,838	6,666	8,637	49.8	49.8	46.3	13.9	19.7	21.7
Teradyne(미국)	374	58,553	2,820	3,190	4,495	37.9	55.8	51.7	7.2	10.8	15.5
동종업종 평균						77.5	67.2	26.9	5.5	7.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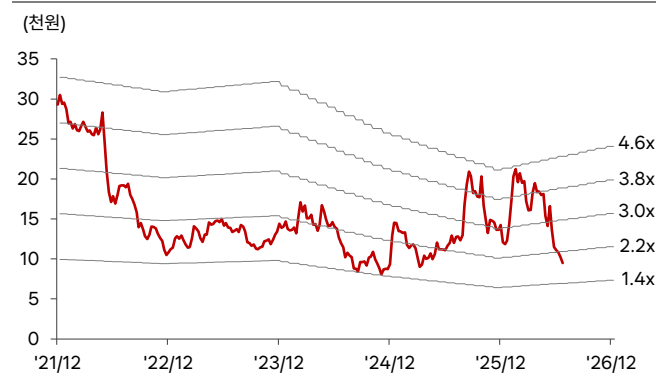
주: 1) 2026년 07월 22일 종가 기준. 동종그룹 26F는 시장 컨센서스 사용, 2) 네오셈 26F는 당사 추정치 기준, 3) Advantest는 CY 기준, 자료: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스트 PER Band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니테스트 PBR Band



자료: WiseF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고객사 투자 변동성

**SK하이닉스 HBM 투자-벤더
정책에 대한 직접적 노출,
중국 고객사 투자 변동과
미중 규제, 태양광 공사 차질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

동사의 실적은 SK하이닉스의 HBM 투자 스케줄 및 벤더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벤더 물량 배정 축소 또는 투자 지연 시 실적 추정치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경쟁사 다이아는 2024년 4분기부터 SK하이닉스향 HBM Burn-in 테스터를 이미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반면, 동사는 2026년 5월에야 첫 양산 공급계약(291.6억 원)을 체결한 후발주자 위치에 있다. HBM4 세대에서 벤더 점유율 확보에 실패할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이 제한될 수 있다. 동사의 DRAM Burn-in 장비는 중화권 고객사향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반도체 업체의 CAPA 투자 계획에 연동된다. 미중 반도체 수출 규제 변화나 중국 고객사의 투자 계획 변경 시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태양광 부문은 관급공사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진행기준 매출 인식 구조상 향후에도 프로젝트별 원가율 악화 시 추가적인 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238	1,678	924	1,102	2,051
증가율(%)	8.0	35.5	-44.9	19.2	86.1
매출원가	923	1,253	738	949	1,481
매출원가율(%)	74.6	74.7	79.9	86.1	72.2
매출총이익	315	424	186	153	570
매출이익률(%)	25.4	25.3	20.1	13.9	27.8
판매관리비	375	353	420	364	371
판매비율(%)	30.3	21.0	45.5	33.0	18.1
EBITDA	-13	116	-186	-155	252
EBITDA 이익률(%)	-1.1	6.9	-20.1	-14.1	12.3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흑전
영업이익	-60	71	-234	-211	199
영업이익률(%)	-4.8	4.3	-25.4	-19.1	9.7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흑전
영업외손익	-26	-24	17	-18	-25
금융수익	3	3	6	9	11
금융비용	6	13	13	18	22
기타영업외손익	-23	-14	24	-10	-14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4	-8	-3	6	0
세전계속사업이익	-89	40	-220	-223	174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흑전
법인세비용	-27	-21	53	1	38
계속사업이익	-62	61	-273	-224	13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2	61	-273	-224	136
당기순이익률(%)	-5.0	3.6	-29.5	-20.4	6.6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흑전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53	68	-265	-208	136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98	185	-204	-228	165
당기순이익	-62	61	-273	-224	136
유형자산 상각비	44	43	46	50	52
무형자산 상각비	2	2	3	6	1
외환손익	12	7	3	3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88	25	-164	-110	-23
기타	-6	47	181	47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4	9	-49	-5	-6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02	5	0	11	-8
유형자산의 감소	0	28	0	2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8	-15	-51	-22	-20
기타	0	-9	2	4	-3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8	-36	111	118	82
차입금의 증가(감소)	-12	-21	151	122	8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31	-8	-40	0	0
기타	-5	-7	0	-4	0
기타현금흐름	-5	-1	5	-0	1
현금의증가(감소)	-77	158	-138	-116	184
기초현금	381	304	463	325	209
기말현금	304	463	325	209	393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071	1,189	1,108	1,002	1,324
현금성자산	304	463	325	209	393
단기투자자산	18	33	41	42	78
매출채권	359	357	463	481	456
재고자산	360	224	195	226	315
기타유동자산	30	113	83	45	83
비유동자산	826	781	742	711	686
유형자산	610	586	577	564	532
무형자산	47	15	14	4	2
투자자산	105	93	90	84	92
기타비유동자산	64	87	61	59	60
자산총계	1,897	1,970	1,850	1,713	2,010
유동부채	337	367	454	645	776
단기차입금	25	22	180	407	477
매입채무	129	116	137	142	186
기타유동부채	183	229	137	96	113
비유동부채	128	122	226	128	15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49	31	126	24	24
기타비유동부채	79	91	100	104	134
부채총계	466	489	680	773	935
자배주주지분	1,420	1,478	1,184	970	1,106
자본금	106	106	106	106	106
자본잉여금	288	288	288	288	288
자본조정 등	-68	-69	-69	-69	-6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37	40	51	47	47
이익잉여금	1,058	1,114	808	598	734
자본총계	1,432	1,482	1,170	940	1,075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41.9	N/A	N/A	14.4
P/B(배)	1.6	1.9	1.6	3.0	1.8
P/S(배)	1.8	1.7	2.0	2.6	1.0
EV/EBITDA(배)	N/A	21.7	N/A	N/A	7.9
배당수익률(%)	0.0	1.1	0.0	0.0	0.0
EPS(원)	-252	319	-1,252	-984	641
BPS(원)	6,720	6,994	5,601	4,592	5,233
SPS(원)	5,857	7,938	4,374	5,214	9,703
DPS(원)	0	150	0	0	0
수익성(%)					
ROE	-3.6	4.7	-19.9	-19.3	13.1
ROA	-3.1	3.2	-14.3	-12.6	7.3
ROIC	-8.5	7.2	-22.3	-18.0	14.6
안정성(%)					
유동비율	317.6	324.4	243.9	155.2	170.7
부채비율	32.5	33.0	58.2	82.3	86.9
순차입금비율	-7.1	-20.6	-2.1	22.3	6.7
이자보상배율	-9.2	5.4	-22.8	-12.0	9.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9	0.5	0.6	1.1
매출채권회전율	3.7	4.7	2.3	2.3	4.4
재고자산회전율	4.0	5.8	4.4	5.2	7.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유니테스트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7.24	유니테스트-HBM Burn-in 테스트가 여는 실적 턴어라운드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